

보충질문답변(서면)
【행정지원국 소관】

□ 질문의원 : 안익순 의원

○ 질 문

-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이 주로 구도심의 과밀학교에서 미 실시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은?
-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보육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답 변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답변 드리게됨을 양해바람.
- 제한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8개 학교의 대부분의 이유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급식소가 협소하여 제한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일부학교는 저학년(1~2학년)에 대하여 오전수업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원하고 있지 않는 반면 맞벌이 부부들은 학교급식을 원하는 등 의견차이가 있어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여부를 결정하여 제한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제한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8개교중 학교급식 개선이 가능한 소사초등 6개교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학교급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급식소 협소등으로 인하여 제한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시에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급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00%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보육대책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 방과후에 소외되기 쉬운 환경으로 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2002년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지도교사로 파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금년부터는 학습지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공부방의 운영을 위하여 공부방별 매월 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는 종교시설,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내에서의 방과후 교실은 2002년도에 범박초등학교 1개교 뿐이었으나 금년에는 도원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임.
- 앞으로도 방과후 교실의 운영이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공보실 소관】

□ 질문의원 : 안익순 의원

○ 질 문

- 한국방송공사는 1999년 4월 원미구 원미1, 2동, 소사구 소사본3동 일부 지역 등 4천6백8세대를 산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하여 TV수신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하나 면제가 되지 않았고,
- 2003년 3월14일 현재 시 전체 1.1%인 2천9백2십4세대가 자연적인 난시청으로 면제하고 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제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세대가 누락되어 있으니, 한국방송공사는 시 전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는 TV수신료를 즉각 면제하여 주고 그 동안 부당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서 1999년 4월말 현재 원미구 원미1·2동, 소사구 소사본3동 등 일부지역 4천6백8세대에 대하여 자연적인 난시청을 인정 TV수신료를 면제하겠다는 세대와 2003년 3월14일 현재 면제세대는 2천9백2십4세대로 면제 세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 된다는 답변으로 자료 접수 즉시 제출토록 하겠으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전역에 대한 TV난시청 재조사를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의뢰 하겠으며,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 조치토록 요청 하겠음.